일제 식민지 시기의 한국어 회화서 『日鮮 遞信會話』와 『朝鮮語遞信會話』에 대한 일고찰

박기영*

〈차 례〉

1. 머리말
2. 『日鮮 遞信會話』와 『朝鮮語遞信會話』
   1) 『日鮮 遞信會話』(1913)의 체재와 내용
   2) 『朝鮮語遞信會話』(1938)의 체재와 내용
3. 두 회화서의 체신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 검토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한국어 회화서 가운데 체신업무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간행된 『日鮮 遞信會話』와 『朝鮮語遞信會話』를 소개하고 이 회화서에 나타나는 체신 관련 어휘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두 회화서의 범례와 목차, 본문의 구성 등을 통해 각 회화서의 체재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朝鮮語遞信會話』가 『日鮮遞信會話』에 비해 한글 자모와 발음에 대한 설명과 연습 문제 등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朝鮮語遞信會話』가『日鮮 遞信會話』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본문의 내용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두 회화서가 보여주는 체신 어휘 가운데 우편 관련 용어들을 비교 검토하여 두 회화서가 개화기 체신 어휘 자료로서 갖는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우편 관련 용어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 어휘들이거나 그 어휘들로 변해 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 어휘들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日鮮 遞信會話』,『朝鮮語遞信會話』, 한국어 회화서, 체신 어휘, 우편 용어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간행된 한국어 회화서인『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를 통해 당시의 한국어 학습서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 두 자료에 등장하는 체신 관련 어휘를 비교, 검토하여 개화기 체신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간행한『日鮮 遞信會話』(1913)는 당시의 체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해 편찬된 회화서이다. 그리고『日鮮 遞信會話』보다 25년 후에 간행된『朝鮮語遞信會話』(1938)는 조선어연구회에서 편찬한 회화서로 통신사업 종사자들의 조선어 자습 및 교과용으로 펴낸 것이다.

개화기로부터 일제식민지 시대에 걸쳐서 간행된 한국어 회화서의 전반적인 자료 목록과 그 간략한 서지 사항은 山田(1997)을 통해 이미 그 대략적인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山

田(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회화서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년간 국어학적, 일본어학적, 한국어교육학적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회화서 역시 山田(1997)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회화서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단순히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회화서들이 '遞信'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대화를 중심으로 엮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박기영・채숙희(200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30년대의 일본인 학습자용 한국어 회화서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일반 목적의 회화서와 함께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회화서가 같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新訂警察官必携朝鮮語』(1931)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관을 위한 한국어 회화서로, 구체적인 단원명에 '交通整理及指導, 搜查逮捕, 巡察, 訊問, 戶口調查' 등이 나타나 교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박기영・채숙희 2007:149). 우리가 살펴볼 이 두 회화서도 그 목차를 보면 당시의 체신 업무와 관련된 대화, 용어가 주로 등장함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회화서를 함께 다루는 또 한 가지 이유는『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가 전혀 별개의 회화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朝鮮語遞信會話』는『日鮮遞信會話』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체신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회화서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 두 회화서에 등장하는 체신 업무 관련 어휘를 대조해 봄으로써 어떤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체신 관련 분야는 개화기에 들어서서 새롭게 도입된 문물이나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어휘들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이 두 회화서를 통해 1910년대 이후 체신 관련 어휘들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두 회화서를 살펴보는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우선『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주로 한국어 교재로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겠지만 국어학적인 검토도 필요하면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두 회화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에는 체신 관련 용어에 대한 비교,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 25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2.『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

1)『日鮮 遞信會話』(1913)의 체재와 내용

먼저 1913년에 간행된 한국어회화서인『日鮮 遞信會話』의 체재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검토할『日鮮 遞信會話』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마이크로피시(microfiche)로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한 것이다. 山田(1997)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 이 회화서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 도서관에도 각각 소장되어 있다.

---

1) 체신 관련 어휘의 변화를 따로 연구한 업적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개화기 어휘 자료집들은 거의 대부분 체신 관련 어휘들을 수집,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박영섭(1994ㄱ, 1994ㄴ, 1996), 송철의 외(2007), 송철의 외(2008) 등이 그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日鮮 遞信會話』는 책의 체재와 서지사항, 목차의 제목과 페이지 수가 일본국회도서관 자료와 동일하여 같은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영남대 소장의『日鮮 遞信會話』는 온라인상으로는 1935년에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인 듯하다. 실제 영남대 소장『日鮮 遞信會話』는 책의 마지막 출판 사항에 大正 2年 즉 1913년에 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목차와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위의 세 자료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본국회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日鮮 遞信會話』의 체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凡例
諺文解, 用詞例, 習慣上ノ變音, 音ノ移動
目次

우선 이 책의 편찬 목적과 체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凡例'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범례'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1)~(6)으로 번호를 붙여 제시하기로 한다.

(1) 본서는 주로 통신업무 종사자의 일상회화의 편의를 도모하기

2) 영남대 소장 자료의 확인은 영남대 국문과 이혁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지면을 통해 선생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3) 책의 겉장이 마이크로피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 제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日鮮 遞信會話』라는 서명은 목차가 시작되는 페이지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타난 것으로 '日鮮'은 '遞信會話'보다 작은 크기로 가로로 쓰여 있다.

위해 편찬된 것이다.
(2) 본서의 용어(用語)는 서울, 지방을 아울러 통할 수 있는 매우 쉽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였다.
(3) 본서의 회화는 되도록 한 호흡에 발음하여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말(短語)로 함으로써 분해 및 조직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다.
(4) 본서 중에 종종 회화의 중복이 있는 것은 색인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제시함으로 인한 것이다.
(5) 본서 일본어에 방훈(傍訓)이 붙어 있는 것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고 조선어에 붙어 있는 것은 일본인을 위한 것이다.
(6) 본서의 언문 중에 한자를 삽입한 것은 회화를 기억하기 쉽게 하고 조선인 용어의 일부를 보이고자 하는 주지(主旨)가 드러난 것이다.

범례 (1)에는 이 책의 편찬 목적이 나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일상회화가 아니라 '통신업무종사자의 일상회화'라고 하는 다소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회화서임을 드러내고 있다. 범례 (2)는 '용어(用語)'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회화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체신 용어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매우 쉽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였다고 함으로써 이 용어들이 단순히 전문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체신 용어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범례 (3)은 대부분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서가 보여주듯이 '獨學'이나 '獨習'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범례 (5)는 일본어의 경우에는 한자 옆에 片仮名(가타가나)으로 일본 한자음을 달아주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발음을 역시 片仮名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이 회화서가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회화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서의 기능도 겸하여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례 (6)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어 회화 부분에 '한자'를 삽입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박기영・채숙희(2007)에서 일본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의 특징으로 한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는 기술이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조선인 용어의 일부를 보이고자 했다'는 기술이다. 이 부분은 이 회화서가 간행될 당시에 아직 체신 관련 어휘에 있어서 일본과 다른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이다.

범례 다음에는 10여쪽에 걸쳐서 '諺文解', '用詞例', '習慣上ノ變音', '音ノ移動'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 나온다. '諺文解'에서는 한글 자모와 음절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 특이한 것은 음절의 구성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한국어 음절의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 일본어 단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 子音ニ母音ノ附加
> 例　経過(ケイクワ)ト書セムニ子音가KA(カ)ニㅣI(イ)ノ母音ヲ右傍ニ加ヘテ개KAI(ケイ)トシ子音고KO(コ)ニㅏA(ア)ヲ加ヘテ과KOA(クワ)ト爲スカ如シ

즉 '經過'라는 일본어의 발음을 한글을 사용하여 쓰려면 '가'에 'ㅣ'모음을 붙여 '개'를 만들고 '고'에 'ㅏ'를 더하여 '과'라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음절 구성의 설명에도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일본어의 발음을 나타내는 데 한글 자모의 음소문자적 특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用詞例'에서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어미의 결합과 함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어미의 결합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習慣上ノ變音'에서는 주로 두음법칙에 대한 표기와 발음의 상이를 다루고 있고 '音ノ移動'에서는 연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53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의 분량에 비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설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후술하겠지만『朝鮮語遞信會話』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범례 (5)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 회화서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일본어의 글자와 발음에 대한 언급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일본어에 대한 기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일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4)]

한글 자모와 발음 및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기술 다음에『日鮮 遞信會話』라는 서명과 함께 목차가 제시된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tr>
<td>第一編 郵便
一 普通應接
二 窓口應接
三 取集
四 配達
五 遞送
六 受負
七 小包
八 監督
第二編 郵便爲替
第三編 郵便貯金
第四編 電信</td>
<td>第五編 電話
一 窓口應接
二 通話交換
第六編 年金恩給ノ支給
第七編 國庫金受拂
第八編 工事
第九編 水力調査
附錄
一 郵便局所一覽表
二 數算稱呼
三 通貨算數稱
四 萬姓會譜
五 日鮮曆自明治元年至日鮮合併對照表</td>
</tr>
</table>

4) 물론 한국어 자모와 발음에 대한 기술이나 문법 형태에 대한 기술도 매우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어 어느 정도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목차는 크게 아홉 편의 소제목과 부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소제목들을 보면 이 회화서가 일반 목적의 회화서가 아니라 체신국의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회화서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5] 第八編의 '工事'도 제목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의 대화를 살펴보면 '電柱, 電話線' 등의 설치와 관련된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뎐쥬의 디션은 잘 되얏소
가입쟈 집안의 디즁도션 공용디션은 뎡긔로 검사ᄒᆞ오(395)
(중략)
뎐화실이 어듸가 됨닛가
잡아다니는 션은 방안으로 ᄒᆞ릿가
마루를 통케 ᄒᆞ오(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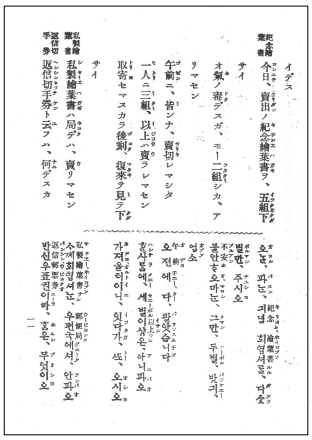
이제 각 제목 아래에 이루어진 한 단원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단원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문의 상단에 일본어 문장이 있고 하단에 그에 대한 한국어 대역이 있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7] 그리고 범례 (5)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어

---

5) 第一編의 첫 번째 단원인 '普通應接'만 유일하게 그 내용이 일상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집필자도 인식을 한 듯 다음과 같은 내용이 '普通應接'이라는 제목 아래 괄호 속에 기록되어 있다.
"普通ノ應接用語ナルモ便宜本編ニ收錄セリ" (보통의 응접용어이지만 편의상 본편에 수록한다.)

6) 第九編의 '水力調査'는 전체 내용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제목으로 보인다. 아마도 당시의 체신국 관장 업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7) 第八編과 第九編도 2단 구성을 취한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단원과 달리 단원 말미에 단어들을 모아 제시하고 있다. 第八編에는 工事에 사용하는 도구 관련 단어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반해 第九編에는 어류, 과일, 야채, 음식재료명 등이 섞여서 제시되고 있다. 이 단어들이 '水力調査'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대화 가운데 수력 조사를 위해 지방으



문장에는 片假名으로 일본 한자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어 문장에는 片假名을 발음 표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한자어 옆에는 한자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림 1>의 첫 문장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日鮮 遞信會話』

コンニチ　ウリダシ　キ子ンエハガキ　イツクミクダ
今日、　賣出ノ 記念繪葉書ヲ、五組下サイ

オヌル　パヌン　キリヨムホイヨプソルル　タソツポルマンチュシヨ
오늘, 파는,　긔념 회엽셔를,　다숫벌만, 주시오
記念 繪葉書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어 문장에 片假名으로 붙어 있는 발음표기가 글자를 그대로 轉字한 것이라기보다 실제 발음을 轉寫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오늘, 파는, 다숫'의 '·'의 경우 각각 그 발음에 따라 'ヌ(nu)', 'ソ(so)'로 표기되어 있으며 '긔념'의 경우도 그 표기와 다르게 'キリヨム(kiryomu)'로 표기되어 있다. 그 다음 문장에 등장하는 '두벌 밧긔 업소'에서 '밧긔'가 'パツケエ一(patkee)'로 표기되어 '긔념'과 '밧긔'의 '긔'가 각각 다르게 片假名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도

로 다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발음을 轉寫한 것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단의 일본어 문장 위쪽에 따로 그 문장에 등장하는 우편용어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에서는 '紀念繪葉書, 私製繪葉書, 返信切手券'와 같은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용어들을 통해 당시 우편 관련 용어로 어떤 어휘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일본과 한국의 우편 어휘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封皮ヲ二枚下サイ 봉투(封套)를 두쟝 주시오(12)
之ヲ書留ニ願ヒマス 이것을 등긔(登記)로 ᄒᆞ여 주시오(39)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편지봉투에 대해 일본어 문장에는 '封皮', 한국어 문장에는 '봉투(封套)'가 각각 제시되어 있고 등기에 대해서는 '書留'와 '登記'로 그 용어를 달리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용어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보다 일본의 체신 어휘가 音譯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일본과 다르게 사용하는 체신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용어들이 이 회화서의 담화 구성의 단위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본문의 대화 내용이 상단에 제시된 체신 관련 용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다시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면 그 용어와 관련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관련된 용어가 연달아 제시될 때에는 그 대화가 새로 시작되기보다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의도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국어 교재의 관점에서『日鮮 遞信會話』를 살펴볼 때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日鮮 遞信會話』의 체재와 내용에 대해 범례와 목차, 그리고 본문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체신 업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회화서인『朝鮮語遞信會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朝鮮語遞信會話』(1938)의 체재와 내용

『日鮮 遞信會話』보다 25년 뒤에 간행된 『朝鮮語遞信會話』는 1938년에 조선어연구회에서 통신사업 종사자들의 조선어 자습 및 교과용으로 펴낸 학습서이다.[8] 책의 앞 표지에는 '朝鮮語研究會 編纂, 朝鮮語遞信會話, 京城 朝鮮語研究會 發行'이라고 적혀 있으며 책의 뒤 표지에는 著作兼發行人이 '伊藤韓堂'[9]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편찬 목적과 한글 표기에 대한 언급이 범례에 기술되어 있다. 범례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거칠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통신사업종사자들의 조선어 자습용 또는 교과용으로 편찬한 것으로 그 용어는 주로 경성의 표준어를 채록하였다.
(2) 본서는 상편에 언문의 해설, 발음법, 기초회화를 수록하여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자습하기에 편하게 하였으며 하편에는 최근 체신국의 제규칙을 기본으로 편찬하여 업무용의 모든 회화를 수록함으로써 일상 집무상의 실용적인 편의를 제공하였다.
(3) 이 책의 언문철자는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보통학교 조선어교과서용 개정언문철자법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

8) 이 학습서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으며(자료번호 3-008626-000),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자료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도 온라인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토하였다.

9) 伊藤韓堂은 이완응(李完應)과 함께 <警察官朝鮮語教科書>를 내기도 하였으며 조선어시험을 치려는 일본인을 위해 <朝鮮語第三種受驗必攜>를 쓰기도 하였다.

범례 (1)을 통해『日鮮 遞信會話』의 경우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朝鮮語遞信會話』의 경우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日鮮 遞信會話』는 범례 (2)에서 그 용어에 대해 '서울과 지방에 아울러 통할 수 있는 매우 쉽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였다고 하였는데 반해『朝鮮語遞信會話』는 '경성의 표준어'를 채록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범례 (2)에서는 이 회화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은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고 상편에서는 일반적인 한국어 회화의 기초를, 하편에서는 체신국의 업무와 관련된 회화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화서 전체 200쪽 가운데 상편이 68쪽으로 한국어 기초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朝鮮語遞信會話』에서는『日鮮 遞信會話』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범례 (3)에서는 이 책의 한국어 표기가 '보통학교 조선어교과서용 개정 언문철자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日鮮 遞信會話』의 범례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인데『日鮮 遞信會話』는 비록 1913년에 간행되었지만 1912년 4월에 확정된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주요 규정에 따르면 고유어의 'ᄋᆞ'는 '아'로 쓰고, 고유어의 'ᄃᆞᆨ, ᄃᆞᆨ' 등은 '자, 저' 등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日鮮 遞信會話』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돗슴니다 져긔서 다시 곳쳐싸시오(21)
신문과 ᄀᆞᆺ흔 료금으로 보내고십소(24)

위의 ‘ᄀᆞᆺ흔, 돗슴니다’의 예에서 보듯이 고유어의 경우에도 ‘ᄋᆞ’를 쓰거나 ‘됴’를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朝鮮語遞信會話』의 범례에 나온 ‘보통학교 조선어교과서용 개정 언문철자법’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언문철자법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朝鮮語遞信會話』가 1938년에 간행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통학교 조선어교과서용 개정 언문철자법’은 그 시기상으로 볼 때 1930년에 2월에 발표된 ‘언문철자법’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나 실제 표기를 살펴보면 1921년에 발표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2005)에 의하면 이 두 표기법은 한자어의 표기, 경음의 표기, 받침의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21)	언문철자법(1930)
○ 기본 방침 (1) 서울말을 표준어로 함. (2) 고유어는 발음대로 표기함. (3) 한자어는 “歷史的 綴字法”을 따름. ○ 주요 규정 (1) 고유어의 ‘ᄋᆞ’는 ‘아’로 씀. (2) 고유어의 ‘댜, 뎌’ 등은 ‘자, 저’ 등으로 씀. (3) 받침은 잠정적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ㄽ’만 씀. (4) 경음은 ‘ㅅㅅ, ㅆ’처럼 된시옷을 씀.	○ 기본 방침 (1) 서울말을 표준어로 함. (2) 고유어와 한자어를 불문하고 발음대로 표기함. 필요에 따라 약간의 예외를 둠. ○ 주요 규정 (1) ‘ᄋᆞ’는 ‘아’로 씀. (2) ‘댜, 뎌’ 등은 ‘자, 저’등으로 씀. (3)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ㄽ’ 이외에 ‘ㄷ, ㅌ, ㅈ, ㅊ, ㅍ, ㄲ, ㄳ, ㄵ, ㄾ, ㅀ, ㅄ’을 더 씀. (4) 경음은 ‘ㄲ, ㅉ’처럼 각자병서를 씀.

『朝鮮語遞信會話』의 실제 표기를 살펴보면 한자어의 표기에서 '댜, 뎌' 등이 나타나고 경음 표기에서는 된시옷이 나타나며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ㄾ'에 한정되어 있다.

> 도장을찍는것은기봉아니하얏다는증명을하기위해서하는일입니다(81)
> 표긔금액을 얼마로하실작뎡(作定)이십닛가(81)
> 이특별취급은 십이월이십오일부터 익년일월칠일까지는 밧지 안습니다(90) cf. 편물도 우편국(소)에서바들수잇습니다(90)

이와 같이 볼 때 범례 (3)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기법은 1921년에 제정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임을 알 수 있다.

범례 다음에 '朝鮮語遞信會話'라는 제목과 함께 목차가 제시된다. 목차와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회화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諺文表 上篇 諺文及基礎會話 中聲 初聲 終聲 重中聲 重初聲 重終聲 發音上特に注意すべき要點 下篇 業務用會話 第一章 郵便	一 窓口應接 二 小包 第二章 郵便爲替 第三章 郵便貯金 第四章 振替貯金 第五章 電信 第六章 電話 一 窓口應接 二 通話交換 第七章 年金・恩給 第八章 工事 第九章 朝鮮簡易保險の勸誘

먼저 諺文表가 제시되고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상편은 범례에서 언급하였듯이 '諺文及基礎會話'라는 제

목 아래에 '中聲, 初聲, 終聲, 重中聲, 重初聲, 重終聲, 發音上特に注意すべき要點'으로 각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한글 자모를 익히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 형식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初聲'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세 자음씩 묶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모음과 결합된 초성을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기ᄀᆞ'와 같이 제시한다. 그 다음에 그 초성을 이용한 단어를 제시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단어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초성은 전혀 포함하지 않은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 제시된 단어 중 초성이 'ㄱ, ㄴ, ㄷ, ㄹ'인 경우만 모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 ㄱ : 고기, 그고기, 고기가, 그고기가
초성 ㄴ : 나, 너, 누구
초성 ㄷ : 나도, 고기도, 다
초성 ㄹ : 다리, 나루, 노루, 디리(地理), 나라, 그리, 그리로, 구리, 가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성 'ㄱ'이 사용된 단어나 구는 다른 자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초성 'ㄴ'이 사용된 단어에는 이미 배운 '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ㄹ'이 사용된 단어에는 그 앞에 배운 'ㄱ, ㄴ, ㄷ'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자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글 자모와 그 발음을 익힘에 있어서 연습하기 위한 단어의 제시가 상당히 체계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한국어 교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음과 결합한 몇 개의 초성을 배우고 난 뒤에는 다양한 연습 문제가 '練習'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10] 그 연

10) 한두 개의 초성을 배운 뒤에도 '*' 표시와 함께 연습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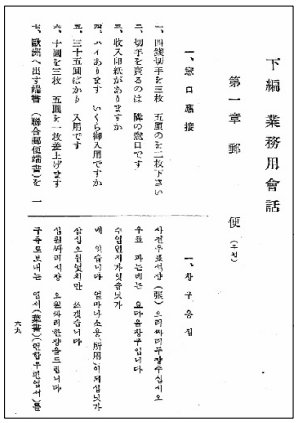
습 문제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배운 諺文 8行을 쓰라.
* 왼쪽의 글자를 분명하게 발음해 보라.
* 왼쪽의 9행의 假名을 언문으로 쓰라.
* 島田, 村上 등의 성을 열 개 이상 언문으로 쓰라.
* 왼쪽의 단어나 문장을 반역(反譯)하라.
* 이미 배운 단어나 구를 최대한 많이 암송하여 쓰라.

이와 같은 연습문제는 '終聲, 重中聲' 등을 배울 때마다 다른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자모와 그 발음 학습을 위한 부분은 그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서『日鮮 遞信會話』보다 훨씬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편은 크게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목차를 비교해 보면『朝鮮語遞信會話』에 추가된 목차는 '第四章 振替貯金, 第八章 朝鮮簡易保險の勸誘' 정도이고『日鮮 遞信會話』의 '第七編 國庫金受拂, 第九編 水力調査'는 빠져 있다. 그 이외의 목차는 거의 동일한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의 遞信局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日鮮 遞信會話』은 第一編 郵便 부분을 8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朝鮮語遞信會話』는 그 중 窓口業務와 小包만을 소제목으로 삼아 회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통신업무 종사자와 우편국을 찾아오는 일반 사람들 간의 대화뿐 아니라 통신업무 종사자 간의 대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日鮮 遞信會話』가운데 일반 사람들과의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만을 선택하여 회화서를 편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편의 구성을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日鮮 遞信會話』과 동일하게 2단 구성을 취하면서도 일본어 문장이나 그의 대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에『日鮮 遞信會話』에서 보이는 片假


下編 業務用會話

第一章 郵便 (二十三)

一、窓口應接

一、四錢切手を三枚 五厘の五二枚下さい

二、切手を貰るのは 隣の窓口です

三、收入印紙がありますか

四、ハイあります いくら御入用ですか

五、三十五圓にかゝり 入用です

六、十圓を三枚 五圓を一枚差上げます

七、歐洲へ出す端書 (聯合郵便端書)を 一

一、창구응접

사전우표시장 (張) 오리짜리두장주십시오

우표 파는데는 요다음창구입니다

수입인지가 있습니가

예 있습니다 얼마나 소용 所用 이 되십니가

삼십오원에 이 장 오원짜리 한장을드립니다

십원짜리 세장 오원짜리 한장을드립니다

구주로 보내는 엽서(葉書)(연합우편엽서)를

六六

〈그림 2〉 朝鮮語遞信會話

名 표기는 어느 쪽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도 범례에서 언급한 대로 『朝鮮語遞信會話』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회화서임을 보여 준다. 또한 본문 상단에 따로 체신 관련 용어들을 노출시키지 않은 것도 『日鮮 遞信會話』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 대신에 상단의 일본어 문장에 번호를 붙이고 있다.

지금까지 『朝鮮語遞信會話』의 체재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日鮮 遞信會話』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 가운데 특히 상편에 제시된 한글 자모와 발음에 대한 기술은 그 구성에 있어서 『日鮮 遞信會話』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두 회화서의 체신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 검토

지금까지는 두 회화서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이제 두 회화서가 갖는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회화서의 체신 관련 어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이 두 회화서는 전혀 별개의 회화서가 아니다. 『朝鮮語遞信會話』가 『日鮮 遞信會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은 다음과 같이 두 회화서의 대화문 일부를 비교해 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日鮮 遞信會話〉 第1編 郵便 二 窓口應接	〈朝鮮語遞信會話〉 第一章 郵便 一 窓口應接
삼젼우표 석쟝 오리두쟝 주시오 우표를 파는덕는 녑편창구오 슈입인지가 잇슴닛가 예 잇소 얼마나 쓰실 터이오 이십오원 어치만 쓰겟소 십원두쟝 오원혼쟝을 듸리오 (중략) 봉함엽셔는 얼마나 흠닛가 삼젼이오 오원ᄌᆞ리로 거슬너 주시오 잔돈이 업슴닛가 지금 거슬을 돈이업소 어듸가셔 밧고아 오시오	사젼우표석쟝 오리짜리 두쟝 주십시오 우표 파는데는 요다음창구입니다 수입인지가잇습닛가 네 잇습니다 얼마나소용이되십닛가 삼십오원엇치만 쓰겟습니다 십원짜리석쟝 오원짜리한쟝을 드립니다 (중략) 봉함엽셔는 얼마합닛가 사전입니다 오원짜리니 거슬너주십시오 잔돈은업습닛가 지금 거슬늘돈이업습니다 어듸가서 밧궈가지고오십시오

두 회화서의 한국어 대화문은 위에서 제시한 일부 대화 내용과 같이 종결어미에서의 차이 혹은 번역상의 문제를 수정한 것 등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회화서의 문장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체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어휘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의 일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의 내용이 동일한 단원 가운데 '窓口應接'과 '小包' 부분의 우편 업무 관련 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11]

11) 본고의 주된 목적은 체신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두 회화서를 소개하는 데에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책 전반에 걸친 체신 관련 어휘의 검토는 하지 않고 우편 관련 어휘만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두 회화서가 갖는 개화기 자료로서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장의 목적이다. 익명의 심사자께서 주신 의견대로 본격적인 체신 어휘에 대한 검토는 두 회화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어휘의 생성 시기나 사용 양상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슈입인지(收入印紙), 엽셔(葉書), 구쥬에보내는엽셔(련합우편엽셔(聯合郵便葉書), 통샹엽서(通常), 왕복엽서(往復), 봉함엽셔(封緘葉書), 무봉셔장(無封書狀), 속달우편(速達郵便), 톄송(遞送), 쇼포(小包), 뎡긔간힝물(定期刊行物), 류치우편물(留置郵便物), 류치통지(留置通知), 가격표긔(價格表記), 인슈시각증명(引受時刻證明), 슈취인(受取人), 비달증명(配達證明), 닉용증명(內容證明), 딕금인환(代金引換), 집금우편(集金郵便), 송달료(送達料), 약속우편(約束郵便), 스셔함(私書函), 톄신국(遞信局)

위의 예는『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의 한국어와 일본어로 사용된 우편 관련 용어가 동일한 경우이다. 이러한 어휘의 수가 가장 많은데 이 시기 체신 사업의 주도권이 일본에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의 우편 관련 용어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우표(郵票)-切手, 봉투(封套)-봉피(封皮), 령슈증(領受證)-수취증(收取證)・수령증(受領證), 우톄통(郵遞筒)-우편함(郵便函)・ポスト[12], 등긔(登記)-서류(書留)

위의 (2)에 짝을 이루어 제시된 용어 중에서 앞의 것은『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의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것이고 뒤에 제시한 것은 일본어 문장에 나타난 것이다. 두 회화서가 25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에 제시된 용어들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듯하다. 물론 전혀 일본어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위의 예들 가운데에서 '封皮, 書留' 등은 두 회화서의 한국어 문장에 쓰이기도 하였다.

12) 우톄통의 경우 한국어는 변화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으나 일본어의 경우『日鮮 遞信會話』에서는 郵便函, ポスト가 모두 사용되었으나『朝鮮語遞信會話』에서는 ポスト만 나타난다.

(3) ㄱ. 됴습니다 가격표긔에 쓰는 봉피와 봉함지를 사오시오<日鮮>
cf. 좃습니다 가격표긔에쓰는 봉투와 봉함지를 사십시오<朝鮮語>
ㄴ. 이편지를 셔류로 영국에 보내겟소 얼마나 들갯소<日鮮>
금은 보셕 쥬옥등쇽의 귀즁품은 셔류나 가격표긔로 하지아니하면안됩니다.<朝鮮語>
cf. 등긔나 가격표긔로 ᄒᆞ지 아니면 안되오<日鮮>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두 어휘가 일시적으로 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회화서의 본문 구성이 일본어 문장에 대한 한국어 대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번역의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에 제시된 일본의 우편 용어들이 두 회화서의 한국어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전부터 사용되던 우편 용어가 한국어 문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의 우편 관련 용어가 다른 경우이다.[13]

(4) 창구슈작(窓口酬酌)-창구응접-창구응졉
분젼(分傳)-配達-비달, 증인(證印)-認證-인증
거쳐(居處)-宿所-슉소, 差出人-차출인[14]

(4)는『日鮮 遞信會話』와『朝鮮語遞信會話』의 우편 관련 용어가 다르되 일본의 우편용어를 따라가게 된 경우이다. 이 가운데 특히 '分傳'이라는 용어는『日鮮 遞信會話』에서는 '配達'보다 더 많이

13)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우편 용어라고 하기보다 우편업무와 관련된 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14) '差出人'의 경우『日鮮 遞信會話』에서는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두 회화서의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슈취인이 내지 안는 ᄯᅢ에는 로형이 내시오<日鮮>
만일슈취인이내지아니하면 차출인에게밧습니다<朝鮮語>

사용되었지만 『朝鮮語遞信會話』에서는 거의 자취를 보이지 않고 '配達'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15]

지금까지 두 회화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체신 관련 어휘 가운데 우편 관련 용어만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 시기의 우편 관련 용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를 차용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전에 쓰였던 용어가 일본의 우편 용어로 대치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부 용어는 일본의 용어를 따라가지 않고 이전부터 쓰였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두 회화서의 체신 관련 어휘들 중 일부만을 비교, 검토한 것인데 전신, 전화, 우편환, 우편저금 등에까지 넓혀서 어휘들을 검토한다면 기존의 어휘 자료집에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특수 목적 한국어 회화서라고 부를 수 있는 『日鮮 遞信會話』와 『朝鮮語遞信會話』를 소개하고 두 교재에 나타난 체신 어휘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개화기 체신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두 회화서의 범례와 목차를 통해 두 책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책의 체재 및 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두 회화서가 갖는 한국어 교재로서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책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두 회화서의 연속성도 확인하였다.

한편 두 회화서의 우편 관련 어휘를 비교 검토하면서 당시의 체신 어휘의 변화 양상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매우 적은 수의 단

15) 한편 '航空郵便, 페낭빅달우편(閉囊配達郵便)'과 같은 용어는 『日鮮 遞信會話』에서는 보이지 않고 『朝鮮語遞信會話』의 한국어, 일본어 문장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우편 제도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긴 용어들이다.

어만을 예로 들어 제시하였으나 이 예들만으로도 이 두 회화서에 등장하는 체신 관련 어휘에 대한 비교 혹은 대조 연구는 기존의 논의나 어휘 수집, 정리 작업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회화서가 일본어 문장에 대한 한국어 대역의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채 논의를 전개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회화서에 나타난 체신 관련 어휘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당시의 신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박기영・채숙희(2007),「일본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에 대한 고찰 - 1890년~1945년에 간행된 교재를 중심으로」,『이중언어학』제34호, 131~158면.

박영섭(1994ㄱ),『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1(독립신문 편)』, 서광학술자료사.

박영섭(1994ㄴ),『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2(신소설 편)』, 서광학술자료사.

박영섭(1996),『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3(교과서・신문 편)』, 도서출판 박이정.

송철의 외(2007),『일제 식민기 시기의 어휘 - 어휘를 통해 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송철의 외(2008),『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승철(2005),「일제강점기의 언어정책 - '언문철자법'을 중심으로」,『진단학보』100호, 221~262면.

山田寬人(1997),「朝鮮語學習書・辭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 - 1880年~1945年 -」,『朝鮮學報』第169輯, 53~79면.

A Study on Two Korean Language Textbooks『Ilseon Chesinhoehwa』(日鮮 遞信會話) and『Joseoneo Chesinhoehwa』(朝鮮語遞信會話) Publish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Kee-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wo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Japanese learners which publish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examine the change of postal word between two textbooks.

『Ilseon Chesinhoehwa』(日鮮 遞信會話) and『Joseoneo Chesinhoehwa』(朝鮮語遞信會話) have never been introduced to researchers. These textbooks are unique in that they were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ostal conversation.

Because『Joseoneo Chesinhoehwa』is a digest of『Ilseon Chesinhoehw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wo textbooks, we can make certain of the postal word which u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o that, we can grasp the changing aspect of postal word in that period.

Key words: Korean language textbook, the postal words,『Ilseon Chesinhoehwa』(日鮮 遞信會話),『Joseoneo Chesinhoehwa』(朝鮮語遞信會話)

박기영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전화번호: 02-2210-5799
전자우편: pky1020@uos.ac.kr

이 논문은 2012년 3월 5일 투고하여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30일 간행함